

쇠고기 이력제

소비자 체험단의 관심이 1박 2일을 뜨겁게 달구다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대리 이동희

지난 7월 27일 아침 10시, 사당역에서 소비자 체험단과의 어색한 만남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첫 견학지는 쇠고기 이력제의 마지막 단계이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식육판매장(서울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방문하였다. 체험단은 식육판매 표지판과 소포장 용기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를 간략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핸드폰으로 조회하면서 "신기하다. 이런 내용이 홍보가 잘되어야 할텐데..."라며 농식품부와 우리소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젊은 대학생 기자는 DNA 동일성검사의 자세한 검증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발길을 돌린 우리 일행은 현대에서 운영하는 서산목장에 도착하였다. 간척지를 이용한 대규모 목장에는 현재 번식우와 비육우를 포함하여 2천800여두를 전통방식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백화점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돌아본 축사는 대규모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력제의 첫 단계인 귀표 부착 시연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제도의 처음과 끝을 견학한 체험단은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도축단계와 포장처리단계에 대한 궁금증을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였다. 저녁식사와 함께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체식별번호를 통한 정보조회', '제도 운영을 위한 소비자 수혜' 등의 차원이 높은 질문과 주제가 다뤄졌지만 다음날의 새벽 가축시장 방문을 위해 남은 이야기는 뒤로 미뤄야했다. 별이 총총한 새벽에 즐린 눈을 비비며 광천가축시장을 방문했다.

홍성축협 조합장님의 인사말과 가축시장에서의 이력관리 내용을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광천가축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소 거래가 제일 많은 곳으로 제도 내에서는 사육단계 소 양도·양수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홍주 LPC에 도착한 체험단은 축산물등급제 및 이력제 교육, 도축장 현장 견학 그리고 즐거웠던 시식을 뒤로하고 마지막 일정이 포장처리업체인 포정유통으로 출발하였다. 포정유통에서는 쇠고기의 부위별 정형방법,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부위별 정형 과정에서 소 한 마리에 이렇게 많은 부위가 있는지 몰랐다면 탄성을 자아냈다.

체험단은 1박 2일 동안의 '목장-가축시장-도축장-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견학을 마친 후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체험단이 보여준 제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그들이 작성하게 될 인터넷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